

고흥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올해 '농수산물 수출 1위'

공영민 고흥군수의 '현장 중심 수출정책'의 결실... 고흥산 농수산물, 세계 무대에서 통하다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올해 10월 기준 농수산물 수출액 9,97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수출 1위를 달성했다.

작은 농어촌 지역이 전국 정상에 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고흥 농수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실히 입증했다.

고흥군의 수출 실적은 최근 몇 년간 눈부신 상승세를 이어왔다. 2022년 8,521만 달러로 전국 군 단위 6위에 머물렀던 고흥군은 불과 2년 만인 2024년에 1억 2,015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국 3위로 급상승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이미 9,970만 달러를 기록해 같은 기간 전국 군 단위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며 사상 첫 1위라는 새 역사를

썼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공영민 고흥군수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개척 활동이 있다. 공영민 군수는 직접 해외 수출개척단을 이끌고 일본, 인도네시아 등 주요 시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협약을 체결하며 고흥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그 결과 고흥산 김·유자·미역 등 주요 품목이 해외 프리미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했고,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 중심의 수출 행정이 단순한 판로 개척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고흥군형 수출 모델'의 기반을 다진 것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성과는 고흥 농어민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이 함께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결과"라며 "연말까지 반드시 1위 자리를 지켜내 고흥군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농수산물 수출의 중심지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나주시,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사회 만든다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 실시

전라남도 나주시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갑질 예방 및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하고 존중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조민수 전문 강사가 맡아 '갑질의 개념과 유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음주운전 관련 징계 기준 및 예방 사례' 등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조 강사는 "사소한 언행 하나가 상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위계 질서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 사회적으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는 음주운전 사례를 소개하며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강상구 부시장은 교육에 참석해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사회 내 권위적 관행을 바로잡고 세대 간 벽을 허물어 모두가 존중받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갑질 근절 서약서 작성, 조직문화 자가 진단, 예방 교육 및 실제조사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며 소통과 배려 중심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장흥군은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늘고 있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10월 31일 '빈집정비 및 활용 TF회의'를 열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활용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에 산재한 농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장흥군, "빈집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활용 방안 마련

특히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빈집 관리·활용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흥군은 그동안 예산 한계로 인해 장기적으로 늘어나는 빈집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TF회의를 계기로 중앙

정부의 국비 지원사업을 연계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사업'과 '2026년 빈집정비 등 경관개선사업' 등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

역 실적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인과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관리대장'을 제작·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구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구례지역자활센터, 전남자활대회 참석

구례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정민)가 제22회 전라남도 자활대회에서 전라남도지사 표창(자활 실무자 부문)과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남지부장 표창(우수 자활사업단, 우수 참여자 부문)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는 '함께 뛰고, 함께 웃는 전남자활'의 주제로, 전라남도 내 23개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1,500여 명의 자활근로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자활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례지역자활센터 이정민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자활공동체로서 더 많은 주민들이 자활의 희망을 가지고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한정호 기자



가족애(애) 물든 영광, '온(溫)가족 행복축제'추진

영광군은 11월 1일(토) 영광문화예술회관에서 영광군가족센터 주관으로 올해 제3회를 맞아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온가족 행복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세대와 국적을 아우른 참여로 활기찬 분위기를 자아냈다.

특히 세계음식문화 체험 부스에서는 베트남 쌀국수, 중국 쇼파빙, 태국 미트볼, 캄보디아 룻차 등 각국의 대표 음식을 직접 맛보는 시간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다문화가정이 직접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영광/이현식 기자



화순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감동의 무대 선사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1월 1일(토) 화순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화순군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연주발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 등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한 해 동안 갖고 닦은 연주 실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날 공연은 지역 주민과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생부터 고등학생 단원들이 클래식 명곡과 영화 OST 등 다채로운 곡을 연주해 관객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특히, 아이들과 성장 과정을 함께한 관현악 강사들의 특별 무대가 더해져 감동을 주었다.

화순/김종환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